

LANGUAGE
STUDY ABROAD
GUIDEBOOK

캐나다 어학연수 가이드북



유학연수에 진심을 더하다!
안심 위에 진심, 유학네트

CONTENTS

SPECIAL

INTRO

성공유학을 위한 고객들의 선택, 안심 위에 진심 더한 유학네트

SPECIAL EDITION 1

워킹홀리데이, 준비됐나요? 떠나기 전에 고려해봐야 할 것들

SPECIAL EDITION 2

전 세계에서 소통되는 '이것' 국제학생증의 모든 것

CANADA

FOCUS

국가소개 캐나다 CANADA

도시소개 캐나다 주요 도시 소개

ZOOM IN

유학칼럼 캐나다 어학연수 유학 인기 비결은 따로 있었다!

SELECTION

워킹홀리데이 2019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안내

인턴십 캐나다 인턴십 바로 알기

영어학교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LIVE REPORT

캐나다, 현지 이야기가 궁금하다

INFO

유용한 정보 캐나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유용한 정보





ELS와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실현시켜 보세요.

나만의 해외 연수 경험을 만들어보세요. 영어를 배우러 전 세계 50여 개 ELS 센터로 떠나 보세요.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성공입니다.

ELS는 학생 개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한 완벽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LS는 최대 규모의 대학 캠퍼스 기반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ELS 강사진은 영어 교육 분야에서 최고입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LS의 교재와 자료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며 영어 교육 분야의 최고 저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ELS의 Intensive English 프로그램은 전 세계 650개 이상의 대학교에서 인정받는 프로그램입니다.

ELS를 졸업하기 전에도 제휴 대학교에 조건부 입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S 센터가 위치한 제휴 대학교에서 수업 참관 또는 청강의 기회가 있습니다.

STUDY ENGLISH. EXPLORE. SUCCEED.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ELS.edu • UniversitySearch.org



세계를 향한 꿈
유학네트가 함께 열어갑니다

당신의 꿈이 그저 꿈꾸는 것에 멈추지 않도록
20년 후에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실패의 두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꿈으로 이어지는 모든 문이 언제나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유학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유학 네트워크,

유학네트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껏 꿈꾸셔도 좋습니다.





GO FURTHER WITH ENGLISH

믿을 수 있는 교육기업, 카플란

카플란은 1938년 창립자인 스탠리 카플란(Stanley Kaplan)이 뉴욕 브루클린 부모님역 지하에 차린 작은 교습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수강생들의 성공적인 사례가 거듭됨에 따라 시험준비를 넘어 고등 교육, 영어 교육까지 아우르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를 창간한 그레이엄 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된 후, Kaplan, Inc.은 전 세계 글자의 교육 사업 및 어학 과정을 자랑하는 세계 1위의 교육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카플란은 전 세계 백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 및 커리어, 개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카플란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모든 결과는 노력의 결과'라는 스탠리 카플란의 창립 정신을 따릅니다.

왜 카플란을 선택해야 할까요?

- 영어권 6개 국가에 위치한 37개 센터
- 전세계 150개국 학생들의 97% 추천율
- 세계 유수의 대학 및 상위 교육 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 국제 학생의 언어 교육에 탁월한 명성을 지닌 K+ 커리큘럼
- TOEFL®, IELTS, CAMBRIDGE 시험 준비과정, GMAT® 및 GRE® 시험 준비과정 제공
- 주니어 글로벌 캠프, 25세 이상 특화 센터, 40세 이상 특화 과정 등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과정 제공
- 1:1 과정, 1주 초단기 영어 연수 등 단기 문화 체험 과정 제공
-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 학생 기숙사부터 현지 가정과 생활하는 홈스테이까지, 전문 직원들이 관리하는 프리미엄 숙소

카플란의 4주 무료 재수강 제도, 영어 실력 보장 정책

영어 실력 보장 정책이란 집중영어 과정(10주 이상) 또는 집중 학기제 과정(5,6,8개월)을 등록한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 당일 측정된 최종 도달 예상 레벨에 과정 종료 시점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요구하는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학생들에 한해 추가 무료 4주 학업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에서 제공되며, 자세한 적용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플란의 독자적인 K+ 학습 시스템

K+ 학습 시스템은 카플란의 교육 전문가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결합하여 개발한 카플란만의 독자적인 통합 영어 학습 시스템입니다. K+의 다양한 교육 자료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분야의 전반적인 실력 향상을 돕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있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으며, 과정을 마친 후에도 K+ Online과 K+ Online Extra를 통해 영어 실력을 계속해서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K+ COURSE BOOKS

깊이있는 영어 학습과 더불어 전반적인 지식 함양과 교양 습득이 가능한 카플란 자체 개발 수업 교재

K+ LEARNING CLUBS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탐구하고 교실에서 배운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회화 스터디 그룹

K+ ONLINE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강의 내용을 복습하고 선생님 피드백을 전달받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K+ ONLINE EXTRA

문법, 발음, 어휘 영역의 더욱 빠른 실력 향상을 이끄는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자료

카플란의 프리미엄 과정 소개

미국 GMAT®/GRE® 시험 준비과정

카플란은 미국 내 GMAT®/GRE® 시험 준비과정을 제공하는 유일한 어학교로 독자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며 전 영역을 학습할 수 있는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높은 퀄리티의 수업을 자랑합니다. GMAT® 시험 준비 과정의 경우, 실전 모의 시험을 제공하여 더욱 체계적인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 영어과정

영어공부와 문화체험 및 휴양을 결합한 영어연수 과정으로 영국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지닌 고풍스런 도시 버스, 영국의 대표적인 휴양도시 토키, 비틀즈와 축구의 도시 리버풀 중 선택 가능합니다. 40세 이상의 중장년들을 위한 과정으로 비슷한 연령대의 학생들과 수업을 받으며 연수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대일 과정

학생이 원하는 어학연수 목적과 실력 향상이 필요한 부분 및 관심 주제 등을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의 목표에 따른 맞춤 수업으로 설계됩니다. 단기간에 실력 향상이 필요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 및 개별적으로 영어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성공유학을 위한 고객들의 선택,

안심 위에 진심 더한 유학네트

지난 1992년 창사 이래 ‘스마트 안심유학’의 길을 걸어온 유학네트는 고객이 유학을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해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할 때까지 고객의 유학 라이프와 함께하는 든든한 유학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27년간 유학 사고율 0%를 달성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지속적인 사랑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이뤘다. 특히 지난 해에는 국내 약 3,300여 명, 해외 부문까지 합하면 무려 1만 7,000여 명이나 되는 이들이 유학네트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1등하는 회사의 유학 컨설팅

누군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는 나 이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선택을 했느냐다. 많은 이들이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만하다는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학수속률 1위를 자랑하는 유학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 바로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된 유학 컨설팅 능력이다.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국내 유일의 ‘민간 유학전문가 자격’을 인정받은 100여 명의 유학네트 유학플래너들은 수만 명의 수속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최적화된 유학 플랜을 제공한다.

특히 국내 14개, 해외 7개 등 국내외 총 21개의 고객상담센터와 전 세계 약 1,500여 개의 초중고, 전문대, 대학(원), 영어학교 등 세계적인 교육기관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유함으로써 고객이 안심하고 해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인프라를 마련해두고 있다. 여기에 해외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완벽한 케어, 똑똑한 서비스로 ‘스마트 안심유학’ 실현

유학네트는 창사 이래 ‘스마트 안심유학’이라는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상담에서부터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그날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라 유학네트는 고객이 편안하게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입학 신청부터 비자 접수, 항공 예약,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공항 마중까지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속 및 출국 준비과정에서 지속적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민첩성으로 고객의 신뢰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또 출국 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현지 도착 후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비보장 제도’를 통해 고객의 수속비와 학비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외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해외 관리 서비스

유학회사의 역할이 고객을 해외 학교와 연결해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유학네트는 ‘스마트 안심유학’이라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업부터 현지 유학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유학 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 담당 유학 플래너가 출국까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나면 출국 이후의 현지 생활은 해외 ACS (After Care Service) 센터의 현지 담당자가 이어받게 된다.

해외 ACS 서비스는 국내와 해외 센터가 서로 연계해 고객을 지원하는 유학네트만의 특별한 시스템으로 고객뿐만 아니라 고객의 가족까지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현지 관리 서비스로, 고객 입국 첫날 해외 ACS 담당자는 공항부터 숙소까지 안전하게 인도한 후 국내 담당 유학플래너에게 무사 도착을 알리는 것에서부터 업무가 시작된다.

이후 입국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고객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다. 또 학업이나 비자 연장 등의 추가 계획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귀국 일정을 체크해 안전한 귀국을 돕는다. 이와는 별개로 유학네트는 유학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국내외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연락 가능한 ‘24시간 긴급지원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워킹홀리데이, 준비됐나요?

떠나기 전에 고려해봐야 할 것들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만 18~30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체결국에 체류하며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이다. 청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소중한 기회이다.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먼저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가 풍성해야 자신에게 꼭 맞는 워킹홀리데이 국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의 철저한 준비로 시작되는 법.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을 짚어봤다.



워킹홀리데이, 나의 선택지는?

‘워킹홀리데이’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나라로 호주, 일본, 캐나다 등이 있다. 많은 워홀러들이 선택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반드시 ‘나의 선택지’로 볼 필요는 없다. 찬찬히 살펴보면 꽤 많은 워킹홀리데이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수 있는 국가는 워킹홀리데이 체결국 20개국과 청년교류제도 체결국 1국으로 총 21개국이다. 워킹홀리데이 체결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스라엘, 네덜란드, 벨기에, 칠레이고 청년교류제도 체결국은 영국이다.

평균 1년 정도 체류하며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자신에게 필요한 경험은 무엇이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또 기후, 국민성, 물가, 치안, 자연환경, 인접국, 관광 요소, 교육의 질 등 나라별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에게 꼭 맞는 워킹홀리데이 나라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워킹홀리데이에 나의 시간을 얼마만큼 쓸까?

워킹홀리데이는 일반적으로 최대 1년의 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각각 1~2년, 3개월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국은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오스트리아는 워킹홀리데이 허용 국가 중 유일하게 체류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나라별로 워킹홀리데이 최대 체류 기간이 다르므로 기간 확인은 중요하다. 워킹홀리데이 나라의 최대 체류 기간을 확인한 후, 얼마만큼의 시간을 워킹홀리데이에 쓸지, 또 그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의 시간을 워홀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1년 중 관광, 취업, 어학연수의 비율을 어떻게 배분할지 생각해야 한다. 외국에 1년 머문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저절로 붙는 것은 아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1년간 의미 없는 잡무만 하고 돌아와서 워홀에 실패하는 워홀러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다. 뚜렷한 목표를 갖고 도전할 때, 영어 실력과 특별한 경험, 여행의 즐거움을 모두 맛볼 수 있다.

또한 나라마다 어학연수를 허용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자신이 선택한 나라에서는 몇 개월까지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 워홀 기간 1년 동안 자유롭게 어학연수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4개월, 6개월 등 어학연수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어학연수 허용 기간을 확인하여 자신은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워킹홀리데이도 플랜 B가 필요하다!

워킹홀리데이 나라마다 모집인원도 다르고 지원 시기도 다르다. 어떤 나라는 모집인원에 제한이 없는 대신 지원 시기가 매년 불특정한 경우가 있고, 어떤 나라는 지원 시기는 연중 수시로 자유롭지만 모집인원이 매우 적은 경우가 있다. 나라마다 신청 방법도 제각각이고 신청할 때 필요한 지원 서류도 다르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불합격 요소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워킹홀리데이에 지원할 때, 가장 가고 싶은 나라에 지원하면서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유사한 환경의 나라를 2지망으로 생각하는 등 플랜 B를 세워두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 직접 부딪혀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귀중한 경험이 되겠지만, 특정 분야에서의 유급 인턴십이나 자격증 취득 등을 노린다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는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분야 인턴십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다. 유학네트 등 믿을 수 있는 유학회사를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 영어 실력과 일자리, 경력 등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어학연수, 대도시 vs 중소도시 어디로 갈까?

우리나라의 서울과 부산이 다른 것처럼 해외의 다른 나라도 도시에 따라 그 규모와 분위기, 특성이 제각각 다르기 마련. 대도시에서의 어학연수와 중소도시에서의 어학연수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대도시 vs 중소도시, 내게 꼭 맞는 어학연수 도시는 어떻게 찾을까?

1. 나의 성향 파악하기

대도시

사람들이 많고 북적이는 곳을 좋아한다.
바쁘고 활기찬 생활을 즐긴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싶다.

중소도시

사람들이 적고 조용한 곳을 좋아한다.
한가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긴다.
전원적인 분위기와 환경을 원한다.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싶다.



2. 나의 연수 목적 파악하기

대도시

취업에 대비한 비즈니스 영어 등을 배우고 싶다
영어시험 준비과정 등 다양한 전문 과정을 수강해야 한다.
인턴십을 통한 현지 직무 경험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환경에서 국제도시의 글로벌한 분위기를 체험하고 싶다.

중소 도시

현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학연수 영어학교의 세심한 관리를 받기 원한다.
영어 공부에만 집중해서 영어 실력을 확실히 향상하고 싶다.
한국인이 적은 환경을 원한다.

3. 키워드로 장점 파악하기

대도시

#다양한 볼거리
#편리함
#교통의 요지
#편의시설 곳곳!

중소도시

#저렴한 비용
#착한 물가
#현지에 동화되기

전 세계에서 소통되는 '이것'

국제학생증의 모든 것

국제학생증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생 신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신분 증명만으로도 호텔 예약, 항공권 구입,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부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학생증은 ISEC, ISIC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꼭 학생이 아니라도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유스증과 교직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교직원증도 있다. 국제학생증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국제학생증 ISEC과 ISIC의 차이는?

국제학생증은 ISEC와 ISIC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세계에서 학생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라는 점에서는 똑같고 숙박, 교통, 공공시설 방문 등에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동일하지만 발급 기관에 차이가 있다.

국제학생증 ISEC는 국제학생교류센터에서 발급되며 국제학생증 ISIC는 한국국제학생교류회에서 발급된다. ISEC(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Identity CARD)는 1958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시작된 학생서비스 프로그램이었다가 1987년 공식적인 법인이 설립되면서 유럽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제학생증이다.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는 유네스코에서 인증하는 국제 학생 신분증으로 ISEC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EC가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학생증인 만큼 ISEC는 미국에서 쓰기 좋고, ISIC는 유럽에서 쓰기 좋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여행 전문가들은 ISEC와 ISIC 모두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국제학생증인만큼 혜택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다.

ISEC의 혜택은 공식 홈페이지 내 혜택 안내 페이지에서 나라별, 기관별로 확인할 수 있다. ISIC의 혜택 역시 공식 홈페이지 내 혜택 안내 페이지에서 항목별로 확인 가능하다.

[국제학생교류센터](#)

[한국국제학생교류회](#)

국제학생증 ISEC과 ISIC,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

국제학생증 ISEC는 학생에 대한 기준이 섬세하다. 풀타임 학생과 파트타임 학생을 나누어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 풀타임 학생은 한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등록한 연수생 등을 포함한다.

파트타임 학생은 한 학기당 12학점 미만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기간제 학교, 평생 교육원, 학점 은행제, 6개월 미만의 어학연수생 등을 말한다.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동등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은 무의미하며, 더 많은 형태의 학생에게 국제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ISIC는 풀타임, 파트타임 구분은 없지만 주 15시간의 수업을 듣는 정규 교육과정에 등록된 풀타임 학생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국제학생증 ISEC는 플라스틱 카드 외에 스마트폰 속 모바일 카드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카드를 분실하더라도 모바일 카드로 대신할 수 있다.

국제학생증 ISIC는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농협, 부산은행 등 국내의 다양한 은행 및 대학교와 제휴를 맺고 있어서 체크카드 기능을 겸한 국제학생증 발급에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제학생증 ISEC는 체크카드 기능이 들어간 국제학생증을 발급하려면 우리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국제학생증 vs 국제유스증, 어떤 카드가 더 유리할까?

국제학생증은 ‘학생 신분’임을 증명하는 카드이고 국제유스증은 ‘젊은이’임을 증명하는 카드이다. 어떤 카드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기 사용 목적이 다르고 나라별 혜택도 달라서 절대적으로 무엇이 유리하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단순 할인 혜택을 비교하면 국제학생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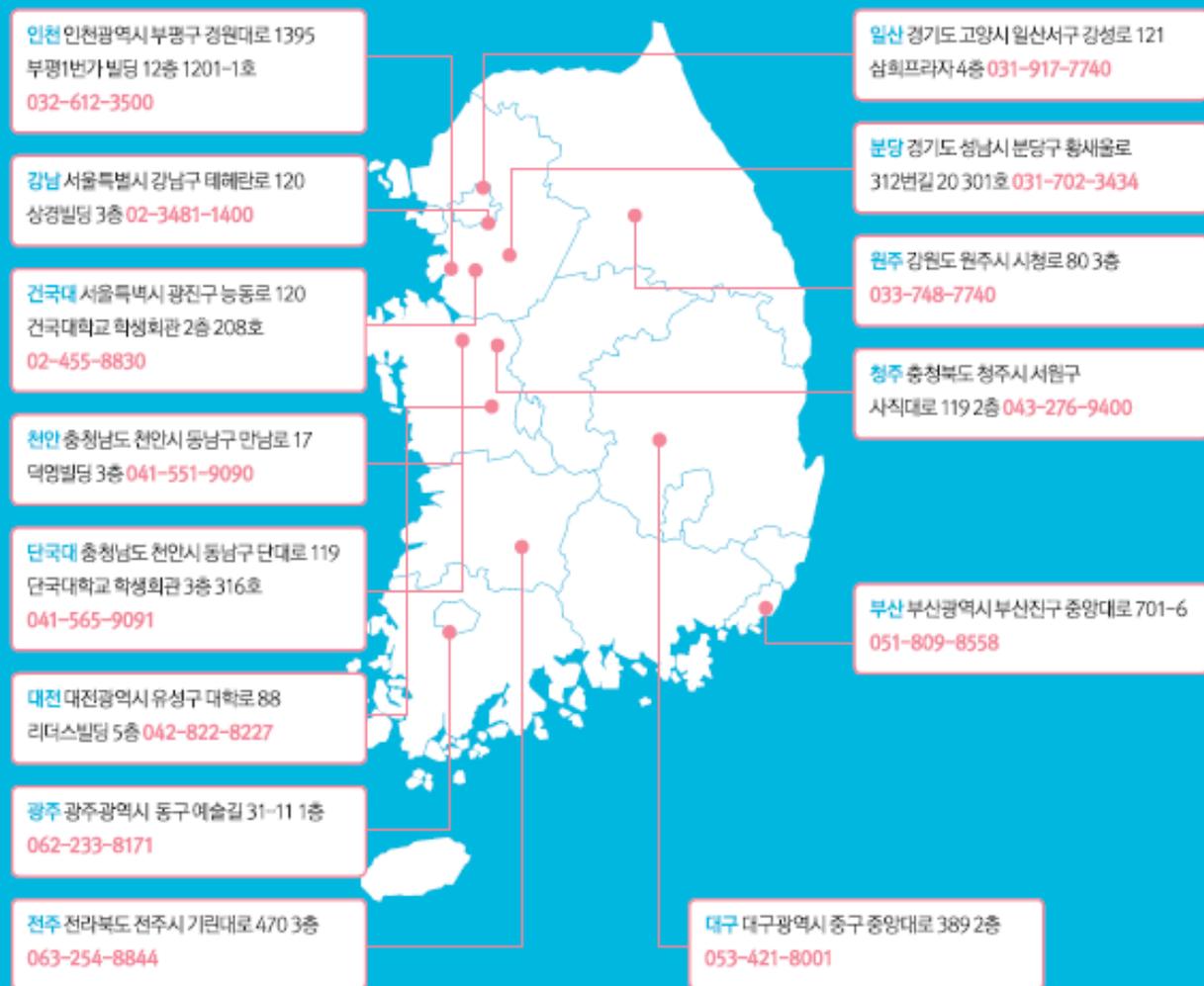
대신 국제유스증은 이미 졸업했거나 학생이 아니더라도 나이 조건만 맞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국제유스증 소지자가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프랑스 등 유럽 일부 지역에서 학생 혜택에 제한을 두고, 나이로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ISEC의 국제유스증 (IYEC)은 12세 이상 만 26세 미만인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으며, ISIC의 국제 청소년증 (IYTC)은 만 30세 이하인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



전국 방방곳곳 어디에나 유학네트가 있다

유학네트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총 14개의 국내 상담센터를 운영, 고객이 전국 어디에서나 유학네트의 스마트 안심유학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교한 유학 컨설팅, 스마트 안심서비스, 현지 밀착 서비스로 안심유학이 실현되는 곳, 스마트 안심유학 전문기업 유학네트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세요!

전국 어디서나 1588-1377 (대표번호)



CANADA



캐나다 국가 소개

수도	오타와(Ottawa)
화폐	캐나다달러(CAD)
면적	998만 4,670km ²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나라)
언어	영어, 프랑스어
시차	Pacific(-17시간), Mountain(-16시간), Central(-15시간), Eastern(-14시간), Atlantic(-13시간), Newfoundland(-12.5시간)로 나뉜다. 태평양 표준시를 사용하는 밴쿠버를 기준으로 한국의 오전 10시는 밴쿠버의 전날 저녁 5시이며 썸머타임(4월 초~10월 말)에는 저녁 6시이다.
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인 77%• 아시아인 14%• 원주민 4%• 흑인 3%• 기타 2%
기후	밴쿠버 태평양과 인접하여 겨울에도 영하로 거의 내려가지 않으며 연중 온난한 날씨를 유지한다. 캘거리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도 꽤 춥다. 토론토 10월부터 4월까지의 추운 겨울로 눈이 많이 내리며, 날씨가 변화무쌍하므로 일기예보 확인은 필수다. 빅토리아 캐나다에서 가장 날씨가 온화한 지역으로 적은 강수량, 많은 일조량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p>유학비자 종류</p>	<p>관광비자(無비자) 최대 6개월(180일)까지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어학연수가 가능하다.</p> <p>학생비자 학교에 등록된 기간만큼 어학연수가 가능하다.</p> <p>워킹홀리데이비자 연간 4,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최대 1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6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하다.</p>
<p>아르바이트</p>	<p>학생비자 6개월 이상 전문과정 수강 시 주당 20시간 아르바이트 가능, 방학기간 풀타임 아르바이트 가능</p> <p>워킹홀리데이비자 시간 제한 없이 근무 가능</p>
<p>평균 연수비용 (1개월)</p>	<p>학비 120만원 + 숙식비 100만원 + 용돈 및 생활비 40만원 = 약 260만원</p> <p>※ 상기 예산은 대략적인 예시일 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p>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표준화된 미국식 영어 학습이 가능하다. • 학생비자 발급이 비교적 용이하며 관광비자 소지자가 6개월 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 • 다양한 어학연수 프로그램(TESOL, 인턴십 등)이 발달했다. •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범죄율이 낮아 초중고 유학지로도 인기가 많다.
<p>단점</p>	<p>밴쿠버, 토론토 등 특정 지역에 어학연수생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p>

추천 관광지

- 록키산맥
- 레이크 루이스
- 부차드 가든
- CN 타워
- 나이아가라 폭포
- 오키나와 호수
- 노트르담 성당 등



캐나다 주요 도시 소개

미국은 50개의 자치구와 한 개의 수도구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다. 세계에서 러시아, 캐나다, 중국 다음으로 넓은 영토를 자랑하는 미국은 동부와 서부의 차이는 지형을 비롯해 문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극명하다. 동부와 서부를 횡단하는 데만 비행기로 6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넓은 영토에 ‘미국 속 유럽’이라 불리는 LA, 대표적인 휴양도시 샌프란시스코,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 등등 도시마다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미국 동·서부를 대표하는 주요 도시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만나보자.



Vancouver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매년 거론되는 밴쿠버는 연중 온화한 날씨 속에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대도시의 세련된 모습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어학 연수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도시이다.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로 토론토가 활기찬 대도시의 느낌이라면 밴쿠버는 여유로우면서도 차분한 대도시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스키장 휘슬러가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미국 시애틀과도 가까워 미국 서부 여행 또한 쉽게 즐길 수 있다. 다만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고 한국인 비율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추천학교

- EC Language Centres
- EF
- ELS
- Eurocentres
-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 LSI
- SSLC
- St Giles
- VanWest



Toronto

온타리오주 토론토

캐나다 최대의 도시이며 북미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인 토론토는 오대호 중 하나인 온타리오 호(Lake Ontario) 호반에 위치하여 미국 동부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여름엔 장마가 없고 한국보다 더 더우며, 겨울은 한국보다 더 춥고 많은 눈을 볼 수 있는 매우 뚜렷한 사계절을 갖고 있다. 토론토는 또 사시사철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세계 4대 영화제로 손꼽히는 토론토 국제 영화제는 9월에 이곳에 머문다면 특별한 경험이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가장 발달한 대도시로 세계적인 대학이 즐비해 어학연수 및 유학지로 인기가 많은 도시이다.

추천학교

- Connect
- EC Language Centres
- EF
- ELS
- Eurocentres
-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 LSI
- SSLC



Montreal

퀘벡주 몬트리올

몬트리올은 ‘북미의 파리’라 불릴 만큼 주민 대다수가 프랑스어와와 영어를 함께 사용한다. 캐나다 속 유럽을 연상시키는 구시가지와 높은 빌딩이 즐비한 신시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더욱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조성하고 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편이다. 비교적 한국인의 비율이 낮은 곳이다. 캐나다의 대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지만 한국인 비율이 걱정되는 학생, 밴쿠버나 토론토보다 물가가 저렴한 곳을 찾는 학생에게 안성맞춤이다.

추천학교

EC Language Centres



Calgary

알버타주 캘거리

‘슈퍼맨’, ‘배트맨’, ‘늑대와 춤을’ 등 다수 영화의 촬영지이자 198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였던 캘거리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지방세가 없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도시다. 록키 산맥의 영향으로 겨울에 눈이 자주 오고 건조한 기후다. 9~5월은 겨울, 6월은 봄, 7~8월은 여름이라고 할 만큼 날씨가 추운 편이므로 눈을 좋아하고 추위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매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캘거리를 추천한다.

추천학교

GV



Kelowna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켈로나

커다란 오카나간 호수를 끼고 자리잡은 도시 켈로나는 춥고 눈이 많이 오는 동부 지역과 따뜻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밴쿠버의 중간 정도의 기후로 공부하기에 더 알맞다. 켈로나가 위치한 오카나간 지역은 여름에는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골프를 겨울에는 스키, 스노우보드를 즐길 수 있으며 매년 열리는 요트와 국제보트 경기, 와인 축제가 특히 유명하다.

추천학교

VanWest College



Victoria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빅토리아

인구 30만이 조금 넘는 관광도시로 밴쿠버와 기후가 비슷하나 강수량은 낮아 날씨가 매우 좋은 도시이다. 꽃과 관련된 행사가 많이 열려 정원의 도시(City of Garden)라는 별칭을 갖고 있으며 깨끗하고 아담한 도시로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딴 도시명에서 느껴지듯 영국 느낌이 강한 곳이다.

추천학교

- EF
- SSLC



Ottawa

온타리오주 오타와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는 영국 식민지 시대의 영향을 받아 곳곳에 영국식 건축물이 남아있다. 매년 5월 네덜란드에서 보내오는 튤립과 수선화로 도시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튤립 페스티벌이 유명하다. 동부 지역의 특성상 날씨가 춥고 타 지역에 비해 학교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것은 단점이다. 그러나 한국 학생 비율이 낮은 점과 현지인 교육 및 문화 수준이 높아 우수한 프로그램과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추천학교

SC GEOS



캐나다 어학연수·유학, 인기 비결은 따로 있었다!

안전하다

어학연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안’이다. 아무리 저렴하다 해도 아무리 영어 실력 향상을 보장한다 해도 안전하지 않다면 목숨을 걸고 갈 수는 없다. 캐나다는 이민자들의 나라로 현지인들이 기본적으로 외국인에게 관대하고 친절하다. 또 같은 북미 지역이라도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총기 및 마약류 소지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세계 최저 범죄율을 자랑하고 있다. 또 경찰과 안전요원들이 학교와 다운타운을 상시로 순찰해 유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다.

미국식 표준 영어를 쓴다

캐나다는 미국식 표준 영어를 사용하면서도 미국인들처럼 흘려 발음하지 않아 미국식 영어에 익숙한 한국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 캐나다는 프랑스어권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기도 했고 프랑스어권 인구 외 다양한 나라의 이민자가 많아 오래 전부터 언어 교수법이 발달했다. 지역과 계층, 인종별로 다른 발음과 억양을 구사하는 미국과 기존의 표준발음정책을 포기하고 여러 발음을 용인하기 시작한 영국에 비해 캐나다는 알아듣기 쉽고 말하기 편한 표준적인 영어를 사용해 영어 학습하기 좋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먼저 캐나다는 미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쉽게 미국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또 캐나다 국내에도 산맥의 흐름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스키장 ‘휘슬러 마운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10대 절경 중 하나인 ‘레이크 루이스’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있어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캐나다의 영어학교 중에는 영어+스키/스노보드/서핑/골프 등 영어 과정과 레저 스포츠를 함께 묶은 패키지 프로그램이 많아 영어 학습과 더불어 적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커리큘럼이 실용적이다

캐나다는 오래 전부터 어학연수 시장을 개척하고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프랑스어와 영어를 공통으로 쓰는 퀘벡주가 있어 일찍이 제2외국어를 가르치는 언어교수법이 발달한 캐나다는 세계 언어학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실용적인 커리큘럼으로 유명하다. 캐나다의 영어학교들은 비즈니스 영어, 인턴십, 테솔, 통번역을 비롯한 전문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단기에 마칠 수 있는 자격증 과정 또한 잘 개발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과 남미 등지에서 해마다 많은 유학생들이 어학연수와 인턴십 등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찾고 있다.

비용이 저렴하다

‘영어학교가 많다’는 사실은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학교들끼리 서로 더 많은 학생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함으로써 학비도 저렴하게 제시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선보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영어권 국가 중 학비가 저렴한 편에 속하며 물가 역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영어권 국가 주요 대도시의 평균 수준으로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예산 조절이 가능하다.



2019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모집 안내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캐나다는 GDP(국내총생산)와 최저 임금은 타국에 비하여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를 적지 않게 벌 수 있다. 또한, 캐나다 지역사회는 커뮤니티가 잘 갖춰져 있어 혼자 유학 생활을 하더라도 이웃들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모집일정

보통 1년 중 총 4,000명의 인원을 선발한다. 2015년까지는 선착순으로 선발했으나, 2016년부터는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 중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잦은 선발방식 변화로 추가 선발 시작일을 예상할 수 없어서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의 공고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비자를 최종적으로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비자는 소멸된다.



자격조건

-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 캐나다 왕복 항공권과 현지 체재비를 충당하는 데 충분한 자금 (CA\$2,500 이상)을 소지한 자
- ✓ 체류 기간 동안 보장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자 (캐나다 입국장에서 해당 의료보험증 제시를 요구 받을 수 있음)
- ✓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해 최종 합격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 자(한국인의 경우, 평생 1회에 한하여 IEC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
- ✓ 부양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필요서류 및 지원절차

1단계 : REFERENCE CODE 받기

캐나다 이민성의 Come to Canada 페이지로 들어가 국적 생년월일, 방문목적 등을 입력한 후 Reference Code를 받는다. 코드는 영문 2자 + 숫자 10자, 총 12자로 되어 있으며 향후 지원서 작성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따로 메모를 해두자.

2단계 : GCKEY 계정 생성

캐나다 이민성의 My CIC페이지로 들어가 사용할 ID,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본인확인 질문 및 답변 등을 입력한 후 계정을 생성한다. 해당 정보는 꼭 캡처 또는 메모 해 두는 것이 좋다.

3단계 : PROFILE 작성&제출

캐나다 이민성의 My CIC페이지로 들어가 자신의 ID,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한다. 계정생성 시 입력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Reference Code를 입력한다. 상세한 인적 사항과 서명을 완료하면 CIC 상에 내 지원서가 제출됐음을 알리는 내역이 나타난다.

4단계 : INVITATION 메시지 수령

지원이 완료된 Profile 중 무작위로 선발을 하게 되며, 선발된 인원은 Invitation 메시지를 수령하게 된다.

5단계 : 추가 서류 제출

메시지를 받게 되면 10일 이내에 수락해야 하며 20일 이내로 추가 서류제출을 마무리 해야 한다. 따라서 추가 서류는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다.

추가 서류

- 여권사본
- 여권사진
- 영문이력서
- 신체검사확인서
- 범죄기록회보서
- 가족관계서류

※ 필요 서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Q. 캐나다의 최저 임금은?

캐나다의 최저시급은 주마다 다르다. 밴쿠버가 속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12.65,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는 \$14이며, 가장 높은 곳은 알버타주로 \$15 이다. 그러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부 가게들은 시급이 \$10에 미치지 않는 곳도 있다.

Q. 일자리는 어떻게 구할까?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다. Craigslist나 Job Bank 사이트 등을 활용해 구직활동을 할 수도 있고 매장에 부착된 Wanted 공고를 보고 방문해 직접 이력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Q. 한국인 워홀러가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레스토랑, 카페, 호텔, 의류상점, 슈퍼마켓, 한인식당/가게 등이 일반적이며 영어실력이 뛰어들 경우 사무직종도 가능하다.

Q. 일자리 구하기 팁

이력서는 매니저에게 직접 전달하고, 미리 인터뷰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자기 소개나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등의 기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생각해두자. 너무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보다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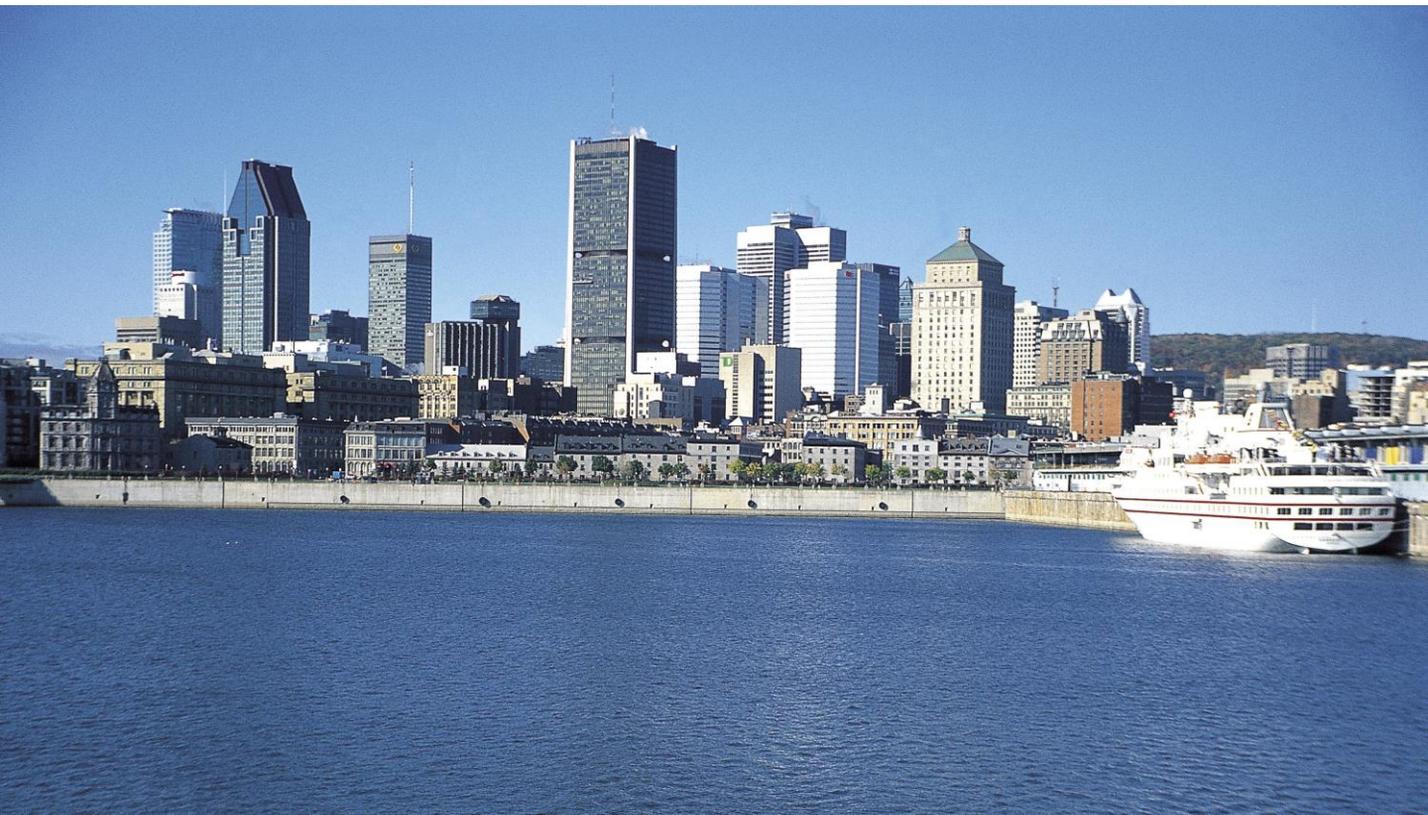
비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출국 전 준비 비용, 현지 생활비용, 정착을 위한 연수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일을 하며 비용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출국 전 준비 비용 약 250만원
(항공권, 준비물품 구입, 보험 등)

생활비용 약 1,500만원(1년 체류 시/
집 렌트, 식사, 교통, 용돈, 여행 등)

어학연수 비용 약 350만원(3개월 연수 시)

※ 본 원고의 내용은 2018년 발표된 2019년 워킹홀리데이 모집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은 담당 유학플래너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인턴십’ 바로 알기

캐나다에서는 전문대학 수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이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캐나다 인턴십! 지금부터 살펴보자.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조건

일반 영어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에는 인턴십이 불가하다. 그러나 영어학교와 연계된 영어학교와 연계된 컬리지의 전문과정 내에 인턴십이나 co-op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무급 또는 유급의 인턴십이 가능하다.

어학연수를 통해 일정 수준의 영어 실력을 쌓고 해당 영어학교와 연계된 전문대학(Career College 수준)의 전문과정(Certificate 또는 Diploma 레벨)을 공부하며 인턴십을 할 수 있다.

인턴십과 워킹홀리데이의 차이

캐나다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워킹홀리데이와 유사해 보인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특정 시기(상/하반기 별도 공지)에 제한된 인원에게 한해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인턴십은 학생비자를 발급 받고 해당 과정을 등록한다면 누구나 유/무급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이나 상점, 카페 등에 업종이 국한된 워킹홀리데이와 달리 인턴십은 본인의 전공이나 관심 분야에 맞춰 캐나다 현지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추후 취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인턴십 기간 중 졸업 후 근무할 수 있는 취업 제의(Job Offer)를 받는 경우 현지 회사에 근무할 수 있고 이민도 고려할 수 있다.

인턴십 및 CO-OP 추천학교 및 프로그램

학교명	과정명 (학업기간)	인턴십 기간
ILAC International College	Service Essentials for Business Diploma (20주)	20주
	Service Excellence for Business Diploma (24주)	24주
	Communication & Service Essentials Diploma (30주)	30주
	Business Administration Diploma (52주)	40주
	Sales & Marketing Diploma (52주)	40주
Greystone College	Diploma in Business Communications (26주)	24주
	Diploma in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26주)	24주
	Certificate in Hospitality Skills (14주)	12주
	Diploma in Customer Service (26주)	24주
	Diploma in Hospitality Management (50주)	48주
	Diploma in Hospitality Operations (26주)	24주
	Diploma in Hospitality Sales and Marketing (26주)	24주
Vanwest College	Business Management Diploma (32주)	24주
	Commerce and Marketing Diploma (48주)	48주
	Professional Customer Service Certificate (16주)	16주

인턴십 및 CO-OP 추천학교 및 프로그램

학교명	과정명 (학업기간)	인턴십 기간
Canadian College	Business Management Certificate (24주)	24주
	Business Management Diploma (36주)	36주
	Hospitality Management Certificate (24주)	24주
	Hospitality Management Diploma (48주)	48주
	Trade Management Certificate (24주)	24주
	International Trade Diploma (48주)	48주
	IT (Information Technology) Diploma (48주)	48주
	Project Management Diploma (48주)	48주
	Social Media Marketing Diploma (48주)	48주

※ 이외에도 다양한 인턴십 및 co-op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에듀플래너로부터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인턴십 CO-OP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



성공 취업을 위한 특별한 스펙을 만들기



캐나다 직장 문화 체험 기회



유급 인턴십으로 유학 비용 절약



실속 있는 어학연수



영어 회화에 대한 두려움 타파



Connect International School

위치 토론토

학교소개 15년 이상의 영어교육 노하우에 맞춰 교사들의 오랜 경력과 높은 실력으로 우수한 커리큘럼 및 양질의 교육을 자랑하고 있다. 소규모 클래스로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전세계에서 온 학생들에게 빠르게 영어 실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핵심영어, 집중영어, 집중영어 플러스, 패스웨이 과정 및 IELTS 전문과정 및 가족영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개인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이래서 추천!

- ✓ 방과후 다양한 액티비티로 학생들 사이의 친화력 및 영어실력 향상 기회
- ✓ 컬리지와 연계되어 영어레벨 인정받는 패스웨이 프로그램 제공
- ✓ 실생활 및 학업에 필요한 영어 수업 (Real English to real life using real tools to learn)



EC Language Centres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밴쿠버 • 토론토 • 몬트리올
학교소개	<p>ISO 9001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교육시스템 및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의 ARELS와 영국 정부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14명으로 제한하여 소규모의 집중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입학 시험을 통해 같은 수준의 학생들로 반을 배정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p>

이래서 추천!

- ✓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학업을 돕는 'EC 개런티' 제도
- ✓ 회화, 발음, 문화 강좌 등 다양한 방과후 무료수업 제공
- ✓ 정기적인 개인 상담을 통한 맞춤 연수가 가능한 장기과정 제공



EF (Education First)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쿠버 • 토론토 • 빅토리아
학교소개	초급부터 고급과정까지 총 18개의 레벨로 나뉘어져 4~6주마다 한 단계씩 레벨업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레벨을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 무료수업을 제공하여 EF 프로그램만의 질적인 보장을 약속한다.

이래서 추천!

- ✓ 2018년 평창올림픽 파트너(다섯번째 올림픽 파트너십)
- ✓ 수업+숙소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
- ✓ 온/오프라인을 혼합한 학습시스템 EF Efekta를 통해 빠른 영어 실력 향상



ELS

- 위치
- 밴쿠버
 - 토론토
- 학교소개
- 1961년 개교 이래 오랜 역사를 자랑하듯 그 명성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650개 이상의 대학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12단계의 영어 레벨, 최첨단 언어 기술 센터, 다양한 시험 서비스 및 대학 진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 접근법과 학생의 목표 달성을 위한 헌신을 통해 성공을 보장한다. 상업적, 문화적, 금융의 도시 토론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밴쿠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추천!

- ✓ 최고수준의 ELS교사진으로 학생 개개인이 최고의 학습을 누릴 수 있는 교육제공
- ✓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 배울 수 있는 최상의 위치
- ✓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ELS의 특별 한정판 교재와 자료



Eurocentres Canada

- 위치
- 밴쿠버
 - 토론토
- 학교소개
- British Council, ALTO, FIYRO의 회원교로 전세계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 Oxford International 그룹에 속해있다. 카페, 쇼핑센터를 비롯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 Language Canada (캐나다 공식 사립 영어학교 관리협회) 인증
- ✓ 집중학습을 선호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리미어과정 제공
- ✓ IELTS 공식 시험센터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 위치
- 밴쿠버
 - 토론토
- 학교소개
- 국가 별 교육기관에 의해 공인된 유학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독자적 K+ 학습 프로그램 및 차별화된 교습 방법을 자랑한다. 또한 일반영어 뿐만 아니라 시험준비과정부터 비즈니스영어 및 해외 인턴십과정까지 폭넓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 정기적인 시험 및 담당교사와의 면담을 통한 학생 관리
- ✓ 오랜 경력과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교사진과 교육 노하우를 보유
- ✓ 연계대학으로 TOEFL 없이 진학 가능



LSI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밴쿠버 • 토론토
학교소개	<p>대부분의 센터가 중소규모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가족적이고 친근한 학생 관리를 통해 영어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한국 학생수가 특히 적고 다른 영어학교에 비해 유럽 학생이 월등히 많은 학교로 정평이 나 있다.</p>

이래서 추천!

- ✓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실력의 교사진을 보유
- ✓ 비교적 소규모로 친근한 학습 분위기를 자랑



SSLC (Spratt Shaw Language College)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밴쿠버 • 토론토 • 빅토리아 • 씨리
학교소개	<p>다운타운 중심가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쇼핑몰, 레스토랑 등 문화시설을 주변에서 접할 수 있어 캐나다의 도시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p>

이래서 추천!

- ✓ 필요한 과정들을 선택하는 맞춤 커리큘럼
- ✓ 방과 후 다양한 무료 수업을 제공
- ✓ 비즈니스, 통번역, 항공승무원 준비과정, 주니어 영어과정 등 제공



St. Giles International

위치 밴쿠버

학교소개 1955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된 St. Giles 영어학교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브라질 등의 주요 도시들에 7개의 영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영어교육재단이다. 대부분의 센터들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며, 다양한 흥미거리가 도처에서 제공된다.

이래서 추천!

- ✓ 저렴하면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장기과정을 제공
- ✓ 학급당 최대 10명의 소규모 학급 구성으로 학생 중심의 우수한 교육을 제공



UBC ELI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위치 밴쿠버

학교소개 세계 최고 40대 연구중심 대학인 UBC의 부설 영어연수 센터 ELI는 학생들이 빠르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준별 다양한 프로그램, 무료의 별도 워크샵과 강의, 체계화된 수업을 통해 영어 실력 향상의 극대화를 경험할 것이다. 젊고 활기찬 UBC 학생들로 구성된 문화도우미 (Culture Assistant)들이 있어, 쉽게 친구를 사귄 수 있으며, 더 많은 영어사용 기회와 함께 캐나다의 다양한 생활과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이래서 추천!

- ✓ UBC 밴쿠버 캠퍼스에 위치하여 UBC의 도서관 및 시설 사용가능
- ✓ 세션당 커리큘럼이 정확히 정해져 있기에 집중도 높으며 우수한 실력의 교사진
- ✓ Speak English Only 규정으로 모든 학생 영어사용



VanWest College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밴쿠버 • 켈로나
학교소개	<p>영어교육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여러 명문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꾸준히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과 후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로 무료 회화 수업이 이루어진다.</p>

이래서 추천!

- ✓ 밴쿠버 유일 BULATS(실무영어시험)과정 제공 및 시험 센터
- ✓ 캐나다 현지 대학생들과의 특별한 교류로 현지 문화 체험 가능



캐나다, 현지 이야기가 궁금하다

유학 중에 겪게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경험과 느낌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생활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유학네트 공식 특파원, 글로벌리포터가 전하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캐나다 우체국 이용하기

저는 미국에 막상 해외에서 머물다 보니 SNS를 통해서나 메신저 어플을 통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 보다는 엽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마자 바로 엽서 보내기에 착수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낼 엽서들을 작성한 후, 집 근처에 있는 우체국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도착해서 앞에 대기자만 6명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작은 규모라 직원 한 분이 일을 처리하고 계셨기 때문에 약 15분 정도 서있었던 것 같아요.

엽서 작성방법은 특별히 어렵지 않았어요! 주소는 국가 칸에 South Korea 를 써주시고, 그 이외에는 한글로 작성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굳이 홈스테이나 현재 살고있는 주소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 되어있지 않다면 반송이 불가하니 꼭 주소를 정확하게 써주세요! 이렇게 주소를 잘 작성하신 후에 직원분에게 국제 우표를 달라고 하셔서 붙이면 끝입니다. 참고로 국제 우표 가격은 한 장당 \$2.65 예요. 한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비싸죠? 그래도 제 엽서를 받고 기뻐할 친구들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구매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엽서를 받았을 때의 반응이 어떨지 상상이 안되지만 분명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밴쿠버 이수빈 리포터

캐나다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캐나다의 Thanksgiving Day는 매년 10월 두번째 주 월요일인데요, 이번 년도는 저희 홈스테이의 일정에 맞추느라 그 전주에 홈스테이 가족의 친척집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홈스테이 가족의 친척들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 저녁 먹기 전까지 조금 어색했지만, 친척집에서 홈스테이 중인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엄청 넓고 동물들도 많아서 놀랐었어요. 게다가 마당이 진짜 넓어서 아기들이 완전 고삐가 풀린 듯이 뛰어 놀더라고요. 이런 점이 한국과는 참 다르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칠면조 고기랑 햄 그리고 Bread Stuffing이라고 불리는 빵을 각자 접시에 담아서 먹었고 디저트로는 펌킨 파이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홈스테이 맘, 여동생 가족이랑 즐겁게 얘기하면서 즐겁게 Thanksgiving Day를 보냈는데 이번 년도에는 제가 친척들을 모르는 관계로 너무 소심하게 있었네요. 무척 후회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무조건 다가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추석을 엄청 챙기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듯이, 캐나다에서도 Thanks giving을 다 다르게 대하는 것 같아요. 제 홈스테이는 친척끼리 모여서 했지만, 가족끼리 간단히 저녁을 먹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밖에서 외식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분명히 새로운 문화고 경험이니 여러분들도 꼭 캐나다에서 Thanksgiving Day를 지내보시면 좋겠어요!

밴쿠버 김재균 리포터



캐나다의 대표 음식 '푸틴'

많은 분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시면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전통음식을 먹어보시고자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의 대표 음식인 '푸틴'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까 합니다. 푸틴은 캐나다 전통음식으로 퀘벡 주에서 처음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푸틴은 감자튀김에 그레이비소스와 치즈 등을 곁들인 음식으로 캐나다인들은 한끼 식사 또는 맥주 안주로 많이 찾는 음식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봄에는 푸틴 축제도 열린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곳에 도착해서 학교 방과 후 활동으로 푸틴 맛집을 찾아가보았는데, 오리지널 버전도 있지만 베이컨, 야채 등 다양한 부재료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가장 보편적인 맛을 먹어보고 싶어서 오리지널로 시켰는데,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아서 당황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테이크아웃을 해서 인근 공원에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나눠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여러분들도 몬트리올에 오시게 된다면 꼭 푸틴을 드셔보세요!

몬트리올 이누리 통신원



캐나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유용한 정보

후회 없는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려면, 캐나다 현지에서 꼭 맛봐야 할 것들과 꼭 둘러봐야 하는 곳들을 누려야 한다. 놓칠 수 없는 캐나다의 명물들을 모아봤다.

MUST HAVE ITEMS

석청

석청 (Ice Honey)은 야생벌들이 산속 깊이 있는 바위틈에 집을 짓고 꿀을 저장한 순수 야생 상태의 자연산 꿀로 고산지대 야생꿀은 일반꿀에 비해 면역력이 월등히 뛰어나다. 또한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며 항암효과, 피부미용, 숙취 해소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

아이스와인

포도나무에서 서리를 맞아 자연 동결된 포도로 만든 디저트 와인으로 겨울 내내 포도의 당분과 산도가 점점 농축돼 일반 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영양제

한국보다 더 저렴하게 다양한 종류의 영양제를 구입할 수 있다. 아사이베리, 크랜베리, 프로폴리스, 오메가3, 유산균 등 많은 영양제가 있다.

메이플시럽

메이플나무의 수액에서 채취하여 만든 천연재료로 프랜시스 케이스 저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세계 음식재료 1001」에 해당된다. 칼슘과 칼륨이 풍부하고 마그네슘까지 함유되어 있고, 칼로리도 낮아서 섭취에 큰 부담이 없다. 또한 포도당과 자당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누적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도 좋다.

HOT PLACES

록키산맥

북아메리카 서부에 남북으로 뻗은 대산맥으로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미국의 뉴 멕시코주까지 걸쳐있다. 록키산맥의 밴프(Banff)는 지오그래픽 트래블러가 선정한 2017년 꼭 가보아야 할 여행지 21에 선정되었다.

휘슬러

북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스키장이 위치해 있으며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열린 곳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세계 3대 스키장 중 하나로 200개가 넘는 슬로프를 보유하고 있는 큰 규모를 자랑하며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 & 보드를 즐길 수 있는 겨울에 특히 매력적인 곳이다.

퀘벡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많이 알려졌으며, 캐나다 속의 작은 프랑스라고 불린다. 도시 곳곳에서 프랑스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동화 같은 퀘벡 시티는 퀘벡 주의 주도이자 도시 전체가 1985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 도시이다.

나이아가라폭포

세계 3대 폭포(이과수폭포, 빅토리아폭포, 나이아가라폭포)로 캐나다 원주민 말로 ‘천둥 소리를 내는 물’이라는 뜻을 지녔다. 실제로 나이아가라 근처에만 가도 우렁찬 폭포 소리가 들리는 것은 물론, 뿌연 안개가 비처럼 쏟아지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만큼 나이아가라 폭포를 최대한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마련되어 있다



STUDY HARD LIVE EASY

깨끗하고 편리하고 경제적인
메트로 밴쿠버 학생 기숙사



최소 5주부터
예약 가능



가구 및 전자제품 완비
(전기 및 수도세, 인터넷, 주1회
공용공간 청소 포함)



24시간 학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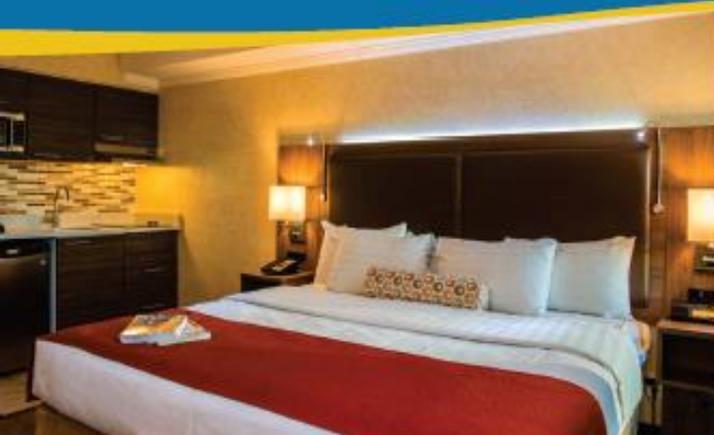
다양한 위치의
기숙사 및 호텔



경제적인
생활방식



매월 학생
이벤트 제공



WWW.STUDENTHOTEL.CA

1311 Howe Street, Vancouver, B.C., Canada V6Z 2P3

604.669.6686 | info@studenthotel.ca



English *Your Way*

- 학생들의 영어 실력 및 개별 성향에 중점을 둔 맞춤형 ESL 수업 제공
- 레벨에 따른 다양한 오후 선택 수업
- 다채로운 스페셜 프로그램 제공
- 캐나다 명문대 진학과정 제공
- 방과 후 무료 수업 및 다양한 Activity 운영 (Activity 코디네이터 상주)
- 캐나다 여러 지역 (밴쿠버, 토론토 및 빅토리아)에 동일한 커리큘럼 제공하며 캠퍼스 이동 가능
- 자매 학교인 VIC-CC 에서 커리어 프로그램 (Co-op, TESOL, and IT-K) 이수 가능



SSLC

Programs

- General English (Skill Combined or Skill Focused)
- Junior Camp (Summer & Winter): Toronto, Vancouver, Victoria
- Power Speaking & Modern Media
- Business English
- TOEFL
- IELTS Preparation
- IEPE/EPE (College-University Pathway)
- English Through Translation (Korean)
- Communication for Airline Cabin Crew Training

Vancouver Victoria Toronto

cibtkorea.blog.me
facebook.com/studysslc
instagram.com/studysslc
twitter.com/studysslc
youtube.com/c/studysslc

studysslc.com
info@studysslc.com



한 ^[수]秀 위의 안심유학

유학네트의 안심유학 서비스,
어떤 점에서 타 업체보다 한 수 위일까요?



유학네트에는 학비 등의 제반 비용에 대한 직접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외 송금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유학네트는 평균 근속연수 8년 이상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한
우수한 유학플래너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학네트는 After Care Service(ACS)를 통해 국내 유학플래너와
현지 한국인 담당자가 출국 회원의 현지 적응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유학네트는 국내 최대 카드사인 하나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업계 최초로
어학연수 학비 12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유학회사입니다.



유학네트는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INNO Biz 업체로
정부기관이 인정한 기술혁신형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 수 위!

유학네트

◇ 55만 유학생이 선택한 스마트텔
당신의 선택도 스마트텔입니다.

◇
미국, 캐나다 갈땐 역시 **스마트텔!**

스마트텔 유심은 미국, 캐나다 현지 통신사의
유심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BUT

요금은 현지보다 더 저렴합니다.

스마트텔은 IAE유학네트가 인증한
최고의 유학생 휴대폰 전문기업입니다.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스마트텔미국유심 @스마트텔캐나다유심



1566-4200

 **smartel** www.smartel.co.kr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길 26 스마트텔빌딩

근무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근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하세요.)



Kings English opens up your world



“As I wanted to make considerable improvement in my English, I decided to take the full-time course so that I could intake the most input. I do have specific future plans for my career a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For this reason, my English skills might influence on the quality of my teaching and English class. Furthermore, English skills will be required for my master's degree in the near future.

In my opinion, my English has improved remarkably.”

Do Yeon Kwon

Studying the Diploma of English at Kings London



TOP STUDY AND LIFESTYLE
LOCATIONS IN THE
UK AND USA

INNOVATIVE, OUTCOME-
DRIVEN COURSES

Focusing on:

- Fluency and experience
- Professional success
- Exam success
- University success

EXCELLENT TEACHING
AND FACILITIES

- Modern, well-equipped classrooms
- Small class sizes
- Experienced teachers
- Dynamic learning methods

Visit
kingseducation.com
to find out more